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The Person of Our Lord Jesus Christ

Preaching of the Cross Serie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The Person of Our Lord Jesus Christ

James W. Knox 원저

이우진 편역



The Person of Our Lord Jesus Christ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 저 자 | James W. Knox

편 역 자 | 이우진

펴 낸 이 | 이우진

표지사진 | 이종열

디자인·편집 | 김화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초판발행 | 2014. 6. 30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5-4 지하

전 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ISBN 978-89-959341-9-7

■ 정가 8,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역자 서문	8
1. 의로우신 분	11
2. 합당하신 분	25
3. 하나님의 어린양	41
4.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57
5. 왜 예수님인가?	74
6. 예수님과 노아의 방주	92
7. 예수님의 선물	111
8.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	130
9. 스스로 계신 분(I AM)	144
10. 예수님의 탄생	160
11.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179
12.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200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229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242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번역자 서문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이상인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이 책은 체계적인 조직신학의 기독교론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미국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 있는 성경침례교회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닉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12번에 걸쳐 설교한 것을 역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원저자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편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주님과 구원자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6월
이우진 목사

1. 의로우신 분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특정한 구절이나 표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펴 놓고 이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계 16:5)

이번에는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아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 15:3-4)

우리 나라의 문제는 의롭고 도덕적인 법률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좋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법과 그것을 집행할 사람이 없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는 경찰관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의롭게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정당한 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롭고 바르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률이나 사법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을 제대로, 정당하고 의롭게 집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의지와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법을 집행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

웁니다. 당신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15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적절하고 바르게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판과 처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심판과 처벌이 없다면 당신의 아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처벌이라는 게 없다면 당신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의로운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의로운 일만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구약성경으로 가서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현명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사람도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장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 7:20)

아마 당신은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보다는 의로울 겁니다. 강간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의로울 겁니다. 알코올중독자보다는 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훨씬 더 의로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혹은 누가 더 작은 죄를 지었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항상 의를 행하는 의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독자 중에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던 사람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항상 의를 행하는 완벽한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생기거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의인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당신이 자신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알코올중독자들과 비교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아,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

는 정말 불의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죄인과 비교하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당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의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욥 4:13-16)

이제 17절부터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17-19절)

당신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끼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과 조금 덜 죄

를 지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거짓말을 하고, 조금 덜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약간 작은 죄를 짓는 사람 말고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항상 옳은 일만을 하며 옳은 것만을 생각하고 옳은 것만을 말하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이 온전히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자신이 하나님만큼 선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결과일 뿐입니다. 온전한 의로움이란 결과만이 아닌 동기도 포함됩니다. 다른 여자와 부정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그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번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도 그런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순히 의롭게 행하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자신에게 나쁜 결과가 생길까 봐 의롭게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의롭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두려워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에 자신의 성

품에 따라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당신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33년 반 동안 온전히 의롭게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의롭게 사셨던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the Just One)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행 7:52) 영어 성경을 보면 “J”와 “O”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대언자들이 의로우신 분에 대해 미리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으로 오셨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침례인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록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행 3:14)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범죄자인 바라바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우신 분, 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의로운 분을 위한 인생과 불의한 사람을 위한 인생 중 왜 항상 불의한 사람을 위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왜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한 자인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의로우신 분과 불의한 자 사이에서 사람들은 항상 불의한 자를 선택해 왔습니다. 의로우신 분을 선택하기보다는 죄악 된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적용해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비교해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비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분과 비교해 보실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불의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불의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군의 장교였던 백부장도 그분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예수님

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선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2천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자 그냥 포기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 3:18)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불순한 저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게 하려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18절을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께서 저를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면 저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과 스가랴 9장입니다. 먼저 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스 9:9)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의롭게 창조하셨고 에덴에서도 아담과 이브를 의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도 의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 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죄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0-21)

당신이 믿는 대상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나 우상이나 성물은 누구의 죄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신부나 목사도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교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침례교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

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오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롬 3:23-26)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심으로 의로운 분이 되셨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심으로 의롭지 못한 죄인인 저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는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모자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라. 그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었다. 그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었다. 너희는 단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이것

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의롭게 만드는 분이 아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 그대가 정죄하겠느냐?”(욥 34:17)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나?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나?”(18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합리적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죄인이지만 만일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과 당신이 예수님께 “당신은 그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영원을 바꿀 수 있는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당신의 소중한 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께 삶을 내어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불의

한 자인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을 위해 삶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당신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쁨을 줄 것입니다.

2. 합당하신 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충만한 때가 이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에 준비된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삼 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사역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원해서 죽으셨으며 삼일 밤낮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이제는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누군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몰라서, 혹은 듣고도 거부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만일 선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면 그러한 복음을 듣기 전에 평생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게 복음이라면 이미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선한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복음이라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뿐입니다.

만일 복음이 돈이나 선행이나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면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구원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대신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

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단순히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해내기에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인간들의 머리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에서는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당신은 미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해 둘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한지 가난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태나 음란물이나 청소년범죄나 여타 다른 범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든 죽어 그분께로 가는 것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다가 올 날을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계 5:11-13)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루한 찬송가나 부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도 울부짖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를 갈지 않습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왕좌에 앉아계시며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에는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길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큰 행복을 느꼈던 예배였지만 다른 누군가는 불만으로 가득 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참석자가 행복하고 진심으로 기쁨을 얻었던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교제에 참석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직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

무리들과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요 19:4-7)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판단의 척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 죄 없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자 그분을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늘에 있는 무리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능, 능력,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능, 사회적인 권능, 경제적인 권능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크고 작은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권력을 잡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투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건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과 권세와 권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주님께서 모든 권력을 가져가십시오. 모든 것을 통치하십시오. 저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불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려고 투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과 권능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마 12:22-24)

바알세불은 더러움과 부도덕으로 가득 찬 마귀들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사악한 마귀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한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부른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권능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밉고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 그분의 권능을 무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통치하게 하라.”고 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당신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당신을 통치하려고 하시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지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는 무리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쪽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부를 소유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계시록 5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이 둘러서 있고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때에라도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랴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만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이러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떠나 머리 돌 곳도 없는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문힐 곳도 없어서 남의 무덤에 묻혀야만 했던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자초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뛰어넘는 영적인 부를 주시기 위해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영광과 부를 위해 수고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영광과 부와 재물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부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나라는 온갖 보석과 황금 길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부와 재물이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무리 엄청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와 재물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과 보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왕관과 보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관을 다시 주님께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관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 4:11)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고전 1:18a)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

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고전 1:18b-21)

과거에 성경을 무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지금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영원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복음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저의 죄가 제거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주님께

서 모든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3장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곱고 예쁘장한 여자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30년간 목수로 사셨습니다. 목수는 거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0년간 거친 일을 하시면서 강한 체력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다운 분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실 정도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실 정도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고 여자 같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배반한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당히 나아가 그들을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원해서 연약한 사람이 되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연약하게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힘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자신의 힘으로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힘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었을지는 몰라도 힘이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분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모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모든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전쟁을 막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역사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끝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능력과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요 8:49)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관련된 욕을 하지도 않고 농담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께 존귀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고 나서 눈을 뜨게 될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합당하게 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니라.”(50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모독하던 사람들을 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독 하던 사람들을 벌 주시기 위해 천사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단숨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이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불의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 오

셨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제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지 말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높일지 말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 말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강제로 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존귀를 돌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서 찬송(blessing)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 3:13)

누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거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전히 죄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잘못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

과 침 뱉음과 비웃음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찬송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알고 있기에 그분께 찬송(blessing)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토록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어린양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피 값으로 우리의 혼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지 죄로부터만 구속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도 구속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속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가 오래 전부터 어떠한 것을 해 왔기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종교나 신념이나 생각이나 문화나 전통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고 실행하는 많은 것들은 당신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침례교회에 다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당신의 죄값을 치러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교회에 다닌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나 주의 만찬이나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 당신의 죄값을 치러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값을 치러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가 당신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당신의 행위든,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이 당신의 죄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죄값이 치러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혼을 구한 대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구원 같은 것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구원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

다. 은과 금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짓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종교나 행위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모든 짓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 29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짓값을 치러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창 3:1)

마귀의 도전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최초의 원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냐?”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속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악과가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것이 바로 마귀의 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자신을 신들처럼 높이려는 교만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을 털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불지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꼭 성경을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상관없이 당신이 옳다

고 생각하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아담과 이브만 따랐던 게 아니라 오늘날 그들의 자손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꼭 교회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거야 뭐 목사님 얘기일 뿐이지.”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꼭 성경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성인인데. 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만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도 읽을 필요도 없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해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벗고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소한 부끄러워하기는 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순결한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짐승의 피로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겔옷(코트)을 만들어 범죄한 인간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동물은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 중 양을 선택하셔서 자신들을 대신해 죽게 하셨다고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을 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짐승으로 양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순결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아벨은 바로 그 순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희생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어린양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짐승을 잡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 4:4).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헌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1:4). 아벨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4:1-8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어린양을 통한 대속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에덴에서 죄를 지

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순결한 짐승을 잡아 죽이시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을 거쳐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 없는 어린양의 피를 힘입어 자신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만을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히 11:4)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3:23).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악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어린양의 피를 통해 나아오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벨이 어린양의 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죽었고 그의 육신은 오래 전

에 썩어 없어졌습니다. 아벨은 아직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벨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순결한 어린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이후에 태어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오직 순결한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전체 인류 중 단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약속의 씨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백 세인 아버지와 구십 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고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1:17-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창 22:3-7)

일단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한 어린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린양은 어디에 있는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은 것입니다.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린양은 어디에 있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양이 보이지 않네요. 어린양은 어디에 있죠? 어린양을 죽여서 피를 바쳐야 하는데, 어린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린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어린양은 어디에 있죠?”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영어 킹제임

스성경은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p for a burnt offering”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글 흠정역 본문과 같이 번역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역주)

창세기 22:8은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양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첫째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의 공포가 지나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어린양을 잡아서 죽여 그 피를 집의 양 옆 기둥과 문기둥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출 12:7).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를 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출 12:13).

하나님께서서는 그 밤에 온 이집트에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

고하셨습니다. 죽음이 모든 집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린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29:38-42). 어린양을 헌물로 드려야 주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린양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린양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도 어린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어린양의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 오심으로 어린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을 잉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마리아의 태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의 예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사람(남자)을 예비하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남자 아이를 예비하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아들을 예비하시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다. 그는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을 예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눅 2:6-7)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니라.”(8-11절)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목수나 장사꾼이나 농부나 군인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갔습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의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아담은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벨도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분이 태어나셨다고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문맥은 침례인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타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2-29)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어린양이셨고 아벨의 어린양이셨고 아브라함의 어린양이셨고 모세의 어린양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증언했던 것입

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사 53:1-7)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누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당신은 썩을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귀중한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이 가죽옷으로 입었던 그 양이

아닙니다. 아벨이 헌물로 드렸던 그 양이 아닙니다. 이삭을 대신했던 숫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었던 양들이 아닙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어린양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저주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받아들였는지, 혹은 거부했는지 여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계 5:11-12)

인류의 역사가 끝난 시점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이십니까? 모든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양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다, 하더라.”(계 5:13)

저는 당신이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새예루살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자 중에는 하늘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깥 어둠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예표로 주어진 어린양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할 어린양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된 고난 받는 어린양도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으며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몸을 포함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아멘.

4.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벳거에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고 빌립이 내시와 동승해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줍니다. 빌립은 내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빌립이 입을 열어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날 중보자라는 말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사 59:16).¹ 증보자는 서로 다른 양쪽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증보자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보자는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은 중재자와는 다릅니다(딤후 2:5).² 중재자는 서로 원수였던 두 사람을 화해시켜 서로 친구가 되게 하거나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롬 5: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라 불리지 않고 친구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중재자로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중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증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증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당신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신에게는 증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1. 성경에서 "증보자"라는 단어는 이사야 59:16에서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나 "중보"는 로마서 8:26, 27, 34, 11:2 디모데전서 2:1, 예레미야서 7:16, 27:18, 36:25, 이사야서 53:12, 히브리서 7:25 등에 나옵니다. -역주

2.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 2:5)

믿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아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혀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를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처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라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사 53:10-11)

여기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1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실 일 중의 하나를 기록한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고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3:23).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건 받지 않았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1:8).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범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과 저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은 이 괴리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성경의 예가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8:15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

은 대언자를 한 사람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마, 저의 원수이자 저를 고소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의 죄를 지적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계 12:10). “하나님 저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장 저 자에게 벌을 주시고 저 자의 몸을 치십시오. 예전에 주님께서 욱의 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의 몸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가족을 치고 가정을 박살내고 건강을 망치고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데려가고 모든 소유를 치게 해 주십시오. 저자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저 자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제가 가서 저 자를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저를 그렇게 고소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의 구원자이자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의 범죄와 불법 사이에 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고의로 짓는 죄에서 떠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시 19:13).

성경을 열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

지만 나에게에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의 죄 사이에 서서 저의 불법과 연약함과 범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 5:10) 영어 성경은 “For if(이는 만일)” 라는 말로 구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논의를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if) 열 시가 되면 밥을 먹도록 하자.” 라는 식의 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적의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화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식이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던 자들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

을 위해 얼마나 더 중보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제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 서시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위해 모든 죄를 담당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제가 대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저 사람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재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중보자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잃고 스스로 정죄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의 마음마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저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저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

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6-28)

저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나오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동일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부라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시고 아버지께 증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저의 육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언젠가 그 일을 완수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저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고 저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고 저의 감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저의 마음 깊은 곳을 훑으시며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사람에게에는 약간의 징계와 책망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약간의 징계와 책망을 저 사람에게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보내지 마시고 약간의 책망과 징계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겸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전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서는 그것을 저의 삶에 적용해 주십니다. 비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요일 3:19-20)

저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저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너는 정죄 받아 마땅해. 너는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정죄는 지옥의 정죄도 아니요 불호수의 정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보다 크심으로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33-34)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때에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정죄할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저를 위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그가 또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있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오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지만 제가 간구하오니, 저의 상처 난 이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제가 저 짓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는 제가 제 몸으로 이미 다 받았습시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 버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저의 모든 짓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

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죄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성경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께서 항상 살아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께서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며 이렇게 묻는다면, “주 예수님,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산다.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너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산다. 네가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너를 위해 중보해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

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생각이 나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예수님의 기도로 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요 17:13-14)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은 엄청나게 큰 것이어서 이 세상의 중오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15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즉시 데려가지 말라고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빛을 우리들에게 남겨 주셨고 우리가 자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

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16-17절)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의 불결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18-20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들의 증언(신약성경)을 믿었습니다.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21절)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2-23절)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24절)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25-26절)

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일하시는데 당신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당

신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왜 당신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모두 비워버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시며, 오른 편에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5. 왜 예수님인가?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JESUS)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

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만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JESUS)라 하니라.”(마 1:21-25)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그 첫째 이유는 바로 그분의 놀라운 출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처녀의 태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나 셋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타락했으며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죄의 본성과 부패와 타락이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도 죄악 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당신의 삼촌이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본성에 있어 그들은 모두 죄인이고 죄인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났으며 죄를 짓고 살았고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었으며 인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처

너의 태를 통해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독자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신이 그분보다 낫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마 11:1-3) 요한이 한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키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마 11:4-6)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인생을 바쳐 섬겨야 하는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된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요 9:24-33)

어떤 사람에 대해 알려면 그가 한 행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

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마 8:2-4)

아무도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머리를 쳐서 뒤로 넘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무도 말씀으로 환자를 고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환자를 고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을 고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말씀만으로 그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말씀만으로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자를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을 보고 분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내가 나는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자신에게는 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들이 한 마비 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 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 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 보느냐? 마비 병 환자에게,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네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막 2:3-12)

당신은 마비병 환자도 아니고 눈먼 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도 아니고 아직 무덤 속에 누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보다 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 우주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출생은 놀라운 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분처럼 행하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과 이 세상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어둠을 비추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건 성경을 믿건 교회에 가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에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트집잡아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위 중 단 하나라도 율법과 어긋나는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만일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삼 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지만

그것으로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원을 총 동원해서 예수님을 미행하고 도청했지만 아무런 작은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감시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지만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눅 23:4)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13-16절)

당신은 저의 말과 행위를 본다면 무수한 잘못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위를 봐도 무수한 잘못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누구의 말과 행위를 봐도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감시를 받으셨지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부터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오. 누군가를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바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바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 같은 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가족의 인생을 봐도 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친구나 직장 동료의 인생을 봐도 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당신이 온전히 믿을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인생을 바쳐 섬길 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목사를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하시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그 어떤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과 행위와 흠 없는 삶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요 7:45-46)

청중을 사로잡아 웃게 만들고 일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웃게 만드는 연설가가 있습니다. 청중이 자살하게 만드는 연설가도 있습니다. 청중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연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던 나쁜 사람이던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하고 당신도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절반만 진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변질 시킵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좋은 의도를 지녔건 나쁜 의도를 지녔건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바로 그 말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

시며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에는 교활함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더러운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번도 뒤에서 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번도 험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신사적이었고 깨끗했으며 적절했고 품위 있었고 거룩했으며 의로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대상은 저도 아니고 당신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그런 식으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제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전혀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없이 전할 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도 사랑으로 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

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믿음과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선포되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항상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출생과 놀라운 행위와 깨끗한 삶과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6-8)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저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의 기사를 볼 수 있습

니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성격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간혹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 생에서의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서 이 세상을 바라 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작고 못생기고 죄악에 물든 인간을 보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께서 주신 양심을 속이고 주님의 길과 정 반대의 길을 갈 때 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사악한 죄인을 위해 죽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허물과 불법과 사악함을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무감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

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공자나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도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헐뜯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고 따르고 섬길 최고의 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문제는 그것이 악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을 믿고 따르고 섬겨도 결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되고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혼을 배반하는 것이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

들을 가지고 있노라.”(계 1:17-18)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를 묻고 나서 삼일 밤낮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를 묻고 나서 삼일 밤낮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를 묻고 나서 삼일 밤낮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삼일 밤낮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통과하여 나오셔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좋은 아침(Good morning)” 이라고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은 정말 좋은 아침이었을 겁니다. 인류역사상 그러한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붙잡아 둘 수 없었던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에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천사들만 만났습니다.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눅 24:5-6).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이 분을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이 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모르고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겠다고 사람도 있고 자기 여자친구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믿겠다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섬길 만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과 행위와 인생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3-17)

당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분을 믿고 있고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처럼 다시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멘.

6. 예수님과 노아의 방주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6-39)

먹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혼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고 팔

고 세우고 심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미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가오는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지만 아무도 그의 설교로 회심하거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이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서 술집으로 가고 결혼식장으로 가고 일터로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교하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설교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경고하고 간청하고 권면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노아의 날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느라 바쁩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점심도 먹어야 합니다.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야 하고 뉴스도 봐야 하고 드라마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료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할 만큼 자신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몇 곡 더 하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황금 같은 한 시간을 더 사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주일 중 서너 시간 이상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회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이 늦게 끝나고 부업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약속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기가 아까울 뿐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인해 인생이 방해 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39을 다시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

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노아의 설교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끔찍한 대환란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 흰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러한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몇 월 몇 일, 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사실을 미리 경고했고 전도지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우고 심었을 뿐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어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이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혼을 돌아볼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사지 않을 옷을 뒤적이고 입어볼 시간은 있어도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서 읽어볼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 자신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백화점에서 쓸 데 없는 물건을 사느라 낭비한 시간 중 한 시간만 떼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네가 쇼핑을 끝내고 맥도날드에 들르지 않고 서점에 들려서 성경을 사서 읽어봤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서의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에서의 자신의 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
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
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 24:40-42)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
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
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
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8-20)

노아의 홍수로 인해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하
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
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지 못했다고 변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교회가 있
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물어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는 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를 120년간이나 들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120년간이나 주어졌던 것입니다. 노아는 5년간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오랜 세월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설교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장성하게 되어도 여전히 설교했지만 회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몇 세대에 걸쳐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처음 설교를 할 때 태어난 아이는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도 장성하여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더해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노아를 도와 방주를 만들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노아는 3세대에 걸쳐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당신이 여기서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홍수도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 방주를 지으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 11:7)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단 여덟 명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도 누군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는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노아가 주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1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120년간이나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저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구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아마 노아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신 것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 설교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구속자와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은 홍수 이후

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욥 19:25) 저는 노아도 구속자에 대해 알고 그분에게 대해 설교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가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어린양의 피의 헌물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노아는 구속자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구속자에게 나아가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설교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구원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린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는 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표를 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노

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담과 므두셀라는 창조로부터 홍수까지 살았습니다. 므두셀라는 아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구전으로 전해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므두셀라는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고 따라서 아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노아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부터 홍수까지는 므두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을 오순절에 증언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걸 보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세상을 향해 진리를 증언하고자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는 아담이 나오고 6절에는 셋이 나옵니다. 9절에는 에노스가 나오고 12절에는 계난이 나옵니다. 15절에는 마할랄레엘이 나오고 18절에는 야렛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에녹이 나오고 25절에는 므두셀라가 나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은 백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 하리라, 하였더라.”(창 5:28)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땅을 저주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술집에 가고 도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날에도 그렇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에녹은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홍수의 심판에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징치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 14-15)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설교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의에 대해서 설교

하며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왜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교했고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책을 설교했습니다. 성경은 두 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 설교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살아 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산 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방주로 들어가서 산 채로 홍수를 통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올라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안전하게 홍수를 통과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마 24:13) 이것은 누구에 대해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를 통과했던 것처럼 환난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의 육체에 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22절)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홍수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

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홍수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간 에녹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 설교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장례식이나 관이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부고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양의 피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벧후 2:4-5)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크게 어겼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대해 선포해야 합니다. 사

람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8-20)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신 동일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

나눔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 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사 55:10-11)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20년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짐승들이 줄을 지어 방주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짐승들이 줄을 맞춰 방주 앞으로 가더니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도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장면이었을 겁니다. 들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사방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은 엄청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러한 모습을 지켜 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의 경지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21).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맛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

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잠깐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창 7:11-14)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짐승을 받아들였습니다. 짐승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롬 8:19). 성경에 의하면 인간과는 달리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노아도 방주 안에 있고 동물들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본문을 마저 읽겠습니다.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15-16절)

다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날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사방에서 나아와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자 누군가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걸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형상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단 3:25).

자, 이 장면을 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Come)”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방주로 “들어가라(Go into)”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방주 안에서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방주 안에는 8명이 아닌 9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노아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고 증언합니다(창 7:16).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닫는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난 분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 갓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환난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

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방주의 문이 닫히고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멘.

7. 예수님의 선물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생각해보곤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잘 대해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각하지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

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해 주고 염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 8:3-4)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것처럼 놀랍고 위대하신 분에 대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볼품 없고 쓸모 없는 사람을 왜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

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장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절반만 유대인인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으러 우물로 왔습니다. 7절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 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요 4:7-10)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헌금을 내야 하고 귀찮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저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 생수는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물을 받고 나서는 목마른 영혼들처럼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비단 종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쾌락을 위해 찾는 그 무엇도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약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마약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의 갈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는 한번도 다른 종교를 찾아 나서거나 저를 구원해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생수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찾아 헤맬 때도 있었고 일을 찾아 헤맬 때도 있었지만 저의 혼은 만족을 얻었기에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은 바로 제가 저의 영혼의 생수를 찾기 위함 여행을 끝낸 날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길고 긴 방황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신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지도 못했지만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생수는 그녀에게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당신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오랫동안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증을 해결하자 오랫동안 생수를 원하던 사람들에게 그 생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갔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생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저는 침례교인이었다가, 혹은 장로교인이거나 감리교인이거나 성결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었다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인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단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³ 왜냐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

3.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행 11:26).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눅 14:27).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역주

이 만난 분이 누구이며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생수를 통해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을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물론교인이나 통일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선물을 안다면 다시는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요 6:48-51)

우리가 살펴볼 둘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매주, 혹은 매일 예수님을 살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발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0-14)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

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끝내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께서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제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미 지은 죄가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제가 지은 죄를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희생적으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씻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게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에 있나이까?”(창 2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⁴

4. 영어 킹제임스성경에는 창세기 22:8이 “And Abraham said,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so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라는 표현은 중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흠정역에서 번역하였듯이 “번제에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양은 희생물로 사용됩니다. 무죄한 어린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므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잡았던 어린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저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집을 준 것보다, 고급 승용차를 준 것보다, 의사가 병을 고쳐준 것보다, 좋은 직업을 구해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아내로 준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준 것보다,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해 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선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선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온 세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요 10:11)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 자체가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 보세요. 말씀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마리아의 태에서 입으실 몸이 형성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몸 밖에 있을 때에도 아들 하나님이셨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도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몸 안에 계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지 그 몸 자체가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교리 중에는 도세티즘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경에 있던 이단교리입니다. 이것을 믿던 자들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 몸을 떠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거하셨던 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살, 즉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몸의 수명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살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제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으면 저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첫째 죽음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둘째 죽음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눕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몸 안에 거하셨던 아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지옥에 가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죄 가운데 죽으면 죽은 후에 몸은 무덤에 묻히겠지만 당신 자신인 당신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차가 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차에 치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첫째 사망으로부터 구한 겁니다. 그 사람을 첫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저의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둘째 사망의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혼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모형은 바로 대언자 요나입니다. 요나의 몸은 고래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돌아와 다시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었던 요나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지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삼일 밤낮 후에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서 나와 다시 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무덤을 나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마귀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나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당신이 예수님계로 나아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어디를 보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7-28)

아마 당신은 제가 너무 자주 같은 얘기를 해서 지겨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지옥에 가셨다면, 그리고 저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히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인을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진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겁니다. 진실로 구원받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요 13:12-17)

발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

을 신습니다. 그러나 이천 년 전 유대인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았습다. 아직도 자신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흥미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왜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합니다(히 12:2).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겸

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물로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본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처럼 당신도 자신을 낮추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요 14:15-17)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성령님의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이 주시는 침례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건,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없애주거나 눈에 가시 같은 형제 자매를 없애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로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당신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위로자께서 당신의 마음을 녹여주시면 당신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욥 5:7).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믿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라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부를지,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님을 부를지,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당신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23:4).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물론 평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평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병에 걸려 아프면 예수님이 그 병에 대해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협한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실까요, 아니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기름값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평안을 잃으실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

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인용한 빌립보서 4:7의 바로 앞 절에 그 비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요 17:8, 14)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8절과 14절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류의 운명과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20-22)

당신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바로 그 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 주셨고 위로자를 주셨고 자신의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영광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요한복음 3:17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8)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3:23). 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전 7:20).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 53:6). 성경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소년과 소녀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으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정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이 보내셔서 세상이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첫째 이유는 세상이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34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둘째 이유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관점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셋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요 4:31) 오늘 주제와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고(prayed)”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로 간청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드시라고,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요 4:32-34)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셋째 이유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혼이 되게 하심으로 첫째 사람인 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게 하시고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존 밀튼의 표현대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날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까지(사 9:6)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

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종으로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 상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적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3-24)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바르게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주시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일시적인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HAVE)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즉시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바로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요 7:14-16)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거짓 종교와 거짓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

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교리나, 교단의 교리나,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 아들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눈이 먼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눈 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들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되며 귀머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마 11:4-5)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유의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되며 귀머는 자들이 듣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여섯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므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복음 전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요 17:18-20)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같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이 건물에서 나가서 이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므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므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므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즉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21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22-2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

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간증과 당신의 삶이 일치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단지 일부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진리, 전부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요 20:21)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일 2:15-16)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천 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 초림하셨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

수님에 대해 생각을 조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 5:20)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엡 6:19-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미국(한국)보다 더 나은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임명 받아 타국에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정부에 반대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참된 국적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서 파견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왕이신 예수님의 대사

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독재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힘을 쓸 데 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반응과 말투와 입는 옷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대로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대로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사명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 스스로 계신 분(I AM)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분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4:4-5).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한 분 주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며 그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이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숨어 지낸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의 한

가운데 불꽃이 있었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광경을 보려고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나라(I AM THAT I AM)”고 하셨습니다(출 3:14). 모세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나는…이다(I AM)”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I am), 하시니라.”(요 8:56-58)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분임을 밝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I am)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the beginning)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계 1:8) 성경은 “처음에(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창 1:1). 예수님이

전에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으며 어떤 창조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는…이다(I AM)”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이다(I AM)”라고 계시하신 일곱 가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기록된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1-35)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이다(I AM)”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당신이 오늘밤 어떤 종류의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당신의 배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든, 비싼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결코 당신의 식욕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식욕에는 육신적인 것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강한 식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음식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입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넣어도,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진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항상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당신의 식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17). 우리의 일정은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식사를 합니다. 또 일하다가 집으로 와서는 저녁식사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십 년간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먹어도 다음날에는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사는 게 곧 먹는 것이고 먹는 게 곧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4:4). 제가 당신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와 욕망과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당신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식욕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중에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암 8:11)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앞으로 닥칠 기근은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혼을 먹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굶주림은 비단 육신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를 사귀고 여자 친구를 사귀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 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남자 친구를 사귀고 여자 친구를 사귀어도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행복해지겠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 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와 사귀고 결혼한다 해도 결코 당신의 혼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욕구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

움을 위해 돈을 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사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유해야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혼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당신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당신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 간에 그것이 당신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맥주와 위스키와 술을 마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게 되면 “나의 갈증은 끝이 났다. 나의 배는 완전히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물건이나 느낌에 중독되어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착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혼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라는 알약을 복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혼을 충분히 채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 마시기 전에는 갈증과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요 8:12)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나 길을 잃은 사람이나 어둠 속에서 더듬는 사람이나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린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며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성경을 따라가지만 한 번도 성경을 따라잡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채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가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채가 많이 있지만 지구를 비추는 광채는 오직 태양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광채는 검은 유리에 흰 먼지 같을 뿐, 지구를 비추지는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비춰야 푸른색과 초록색과 회색과 갈색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보려고 하면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불교도들,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천주교인들, 안식교인들, 개신교인들, 은사주의자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 까요? 저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일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 년 후

에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영원히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인생에 대한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어, 눈 먼 자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일곱 살 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곱 살에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얼마나 방황하든, 얼마나 큰 사고를 치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길로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자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

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 10:7-10)

당신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정신과 가족과 미래를 망치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장래와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존재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문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인생은 풍성해 질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흠치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당신의 삶을 망쳐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쳐 버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 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시력을 받았을 때, 마치 한 번도 눈 먼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한번도 다리를 절었던 적이 없던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게 분명합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당신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

는 한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 하시도록 당신이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문이십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뉩니다.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문 밖에 그대로 서 계십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집에는 뒷문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그 문이다(I am the door)”라고 하셨습니다(요 9:9).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서 양우리의 문이라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또 짐을 얻습니다. 양우리는 양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우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이고 피난처이며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우리를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햇빛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요 10:11)

저는 당신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

명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당신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무엇도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당신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이유는 당신과 저를 위해 증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당신이 죽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 11:25-2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와 이기심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

소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마흔 일곱 번이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지만 저 사람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더 크게 넘어 질수록 그를 일으키는 내 팔이 얼마나 더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부활이 되시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 앞에 나아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생)보다 더 나은 생명(인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자

신 외에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도 인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 지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당 신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물찾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상품명을 적 은 쪽지를 숨겨놓고 그 쪽지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거기에 적힌 상품을 주 는 놀이입니다. 놀이가 시작되면 나무 밑이나 담장 밑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 쪽지를 발견하면 상품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쪽지 중에는 이렇 게 쓰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하하, 멍청한 이여, 당신은 시간만 낭비했습 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인생가운데 비슷한 일을 합니다. 마귀는 당신에 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예쁜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인생의 기쁨도 줍니다. 술도 주고 담배도 쥐서 고통을 잊도록 도와줍니다. 취미도 주고 직장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은 인생을 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옥에서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하하, 멍청한 자여, 너는 시간만 낭비했다.”

마귀는 당신을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파멸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속이고 미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15:1-5)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어떤 죄들은 그만 뒤야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선한 사람이 돼야지.”

만일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한번 더 속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며, 빛이 되시고, 구원의

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며, 길과 진리가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 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값없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동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 15:8).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은 독특한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6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나오고, 7장에는 나인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병약한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이 나오고, 22장에서는 말고를 고쳐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11가지 비유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두 명의 빛진 자 비유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11장에는 귀찮게 졸라대서 도움을 받은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12장에는 어리

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는 잃어버린 동전과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앞의 두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20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는 해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3-20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천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눅 2:1-3)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마 독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적인 설명을 성경에 포함시키셨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중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본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무렵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로마나 이탈리아라고 하지 않고 온 세상이 그의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온 세상이 평화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주의자거나 자유주의자라면 이상하게 들리고 심지어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웠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어둡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교도인 사악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개인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카이사르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카이사르 때처럼 평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며 통치하는데 일시적인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2천년 전 카이사르 시대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연약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편과 혼인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에게는 카이사르 같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히브리 여인이 임신한 채로 어떤 목수와 정혼하게 되었던 아무런 상관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왕들의 왕이요 주

들의 주인 것처럼 자신의 사악한 왕국을 통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대략 650년 전에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 예언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이 통치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대적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천년 전에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든,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카이사르 같은 악한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거나 민족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져도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년 전이나 지금

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4절)

먼저 나사렛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시리아 왕이 유다를 칩니다. 그는 갈릴리의 거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나머지 북쪽 지파의 거주민들을 잡아 갑니다. 이때 이후로 갈릴리는 멸시의 땅이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지파들은 이교도들과 섞이게 됩니다.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와서 혼인을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혈들이고 섞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태에 담은 어머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마리아는 다른 무엇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머무를 방을 구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도시로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든 정통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목자들의 도시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도시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섞인 무리들이 사는 지역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가장 안 좋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멸시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지역인 나사렛은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만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는 대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 요나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욘 1:1, 왕하 14:25). 따라서 나사렛에서 어떤 대언자도 나올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 받는 지역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시고 삼일 만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역과 우리가 속한 가

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연히 우리의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기쁨에 따라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성령님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궁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스 4:14).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좀 더 좋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해 당신에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었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5절)

요셉은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악한 통치자였지만 요셉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악한 정부였지만 요셉은 정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롬 13:1). 우리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6절) 예수님께서서는 미가 5:2의 예언대로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요셉은 자신이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돈은 없는데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 금까지 내라고 하고 다른 도시로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물론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7절)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자신의 “맏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상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지어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쓸데없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니다. 하나님께서 “**말아들**” 라고 하셨다면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몇 구절만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로 있었다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마귀가 가르친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마 12:46) 이 구절에 의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소한 둘 이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마 13:55-56)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소 6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채 “**누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2명 이상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적어도 6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만일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면 처녀 탄생의 기적은 적어도 일곱 번 일어난 것이 됩니다.

저는 처녀 탄생을 일곱 번이나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처녀 탄생은 오직 한번만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며 아내의 역할에도 충실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요셉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던 것입니

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갈 1:19)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아이들을 출산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5)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막 6:3)

다시 누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돌아와 7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비워 두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서 주님께서 쫓겨나신 것이 누가복음 2장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수천년간 자신의 창조물들의 마음과 인생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번번히 쫓겨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2천년 전 여관주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거하실 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헛간에서 주무

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 마음 속의 가장 좋은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싫지는 않지만 내 방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절하고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마음 아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년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방을 찾았지만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목을 방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친구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중에는 아마 이미 방이 딱 차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돈이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미워하지 않았습시다.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욕한 적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를 위해 네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죽어서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왜 예수님을 위해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는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반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지 않고 창고나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지게 하고는 문을 닫아 버렸습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짐승의 우리에 계시며 구유에 누워계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

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포대에 싸여 구유에 놓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눅 23:52-53)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스가랴나 목자들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포대에 싸인 작은 몸을 보시면서 그 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대언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지도자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포대기에 싸인 채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후에 다시 천으로 싸여 돌무덤에 삼일 동안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인 흰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라.”(8절)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4월부터 가을까지만 밤에 들에서 양떼를 돌본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자도 12월 한 겨울 밤에 들에서 양떼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출생하셨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목자가 12월에 양떼를 들에서 재운다면 그는 해고당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9절)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옛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출 24:16)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왕상 8:10-11)

이러한 구절들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 거하실 몸이 마리아의 태에서 준비되었고 이제 그 몸이 완성되자 하나

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몸 안에 거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고,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몸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오실 때와 성막으로 오실 때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출생한 몸으로 오실 때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행 7:55) 저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10절) 아마 당신도 뒷마당에서 한밤중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면 매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보라, 내가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온 백성(all people,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11절) 이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어린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린양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유월절 밤에도 어린양을 잡았으며 레위인들도 희생물을 드리며 어린양을 잡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수들이나 군인들이나 농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해(unto you)”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들을 위해(unto) 태어납니다. 그 날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12절) 이것은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기 때문에 구유에 놓였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13-14절) 14절은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변경시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만 인용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한 말을 반만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

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년 동안 평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살인과 전쟁과 혼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헬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15절)

여기서 잠깐 이 목자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전에는 천사를 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헬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참된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16-17절) 목자들은 마리아가 아닌 “아이”에 대해 널리 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님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거룩한 가족이나 “복된 동정녀”에 대해 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바른 분을 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18-19절)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당신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녀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아내를 쉬게 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던 요셉은 아마 마리아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편에게 불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에 대해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멋진 병원도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산후조리를 할 멋진 쉼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실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 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20절)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널리 알렸습니다(17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부터 부활까지 하신 활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뤄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부터 부활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땅(지구)이 있습니다. 땅 아래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간단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요 19:30)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 1:26-27)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키나 몸무게나 머리 색이나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단수)께서 우리(복수)의 형상으로 우리(복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것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 5:7)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세 분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 5:23)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에 대해 성경은 그분의 머리 색이나 피부나 키나 몸무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과 혼과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영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혼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은 영이나 혼이나 혹은 영혼이 없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상(image, 이것은 외적인(outward) 면을 의미하는 것임)과 모양(likeness, 이것은 내적인(inward) 면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오심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로마서 6장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and the LORD hath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사 53:4-6)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위(on)에 놓여졌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6장도 보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

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 6:23) 만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위에 놓여졌다면 그분은 그 죄의 삯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그분의 위에 놓여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in his own body)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우리의 죄가 그분의 위에 놓여졌다는 말씀은 그분의 영이나 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24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in his body) 담당하셨습니다.

당신과 저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에 당신과 저의 죄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우리의 죄가 담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담고 그 결과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그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막 15:42-43)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

겠습니다.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 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러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44-46절)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주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무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누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매우 주의하여 세심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on) 놓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몸은 죽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 죽은 몸을 돌무덤 안에 눕혔습니다. 돌무덤 안에 놓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그 때는 여섯 시쯤이며 어둠이 아홉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눅 23:44-46) 전도서 3장도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광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전 3:21)

사람이 죽은 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셨습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으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로다.”(전 8:8)

저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영을 머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제 영을 그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을 다스리거나 머무르게 할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영을 다스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예수님의 몸 위에(upon) 놓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 위에(on) 있었습니다. 죄는 예수님 안에(in)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영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히 9:1)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

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 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드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6-12절) 11절에서 말하는 이 건물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실제적인 건물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피를 아버지께 바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지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혼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마땅히 피를 드려야 할 곳에 피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영원히 희생제사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제사를 모두 끝내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습니

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시 16:10)

“썩음”은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 “지옥”은 예수님의 혼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16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행 2:22-27, 30-31)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시편 139편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시 139:7-8)

당신은 이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숨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지옥불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삼일 밤낮으로 지하세계에 계실 때 계속 지옥에만 머무셨던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옥불로 제거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은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혼이 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승리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만일 죄가 예수님의 혼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의 혼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며 빵과 잔을 나눌 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죄값을 치르셨고 혼으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 1:17-18)

예수님께서서는 혼으로 지옥에 가서서 죄를 그곳에 버리시고 지옥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 2:14-15)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는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지옥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박과 감옥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 가서 죄를 모두 그곳에서 처리하시고 열쇠로 문을 열고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요나가 지옥에 갔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

나는 죽고 묻히고(고래 뱃속에)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지옥에는 문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욘 2:2) 요나는 고래뱃속에서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몸은 고래뱃속에 있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산들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빗장들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가 있던 감옥은 빗장으로 잠겨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서서 죄를 모두 처리하신 후에 열쇠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는 감옥을 모두 통과해서 들어왔지만 베드로를 꺼내주기 위해서는 감옥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옥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신 후에 지옥의 문이 잠겼지만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난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신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의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39-43)

어떤 변경된 성경들에는 십자가 “오늘” 뒤에 있습니다. 십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십자가 “오늘” 뒤에 있게 된다면 강도는 언제 낙원으로 가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연옥”에서 수십 만년을 지내다가 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는 “오늘”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날, 바로 그날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처리하시러 지옥으로 가셨다가 채 3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명절의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그 강도의 다리를 꺾어 확실히 죽였습니다. 결국 군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 강도들을 그대로 두었으면 12시간이상 살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날(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강도는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강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네들의 다리를 꺾어야겠네.” “다리를 꺾다니요. 보통 12시간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휘관이 자네들의 다리를 꺾으라고 명령했어. 지옥에서 보세.” 그러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군인 나으리, 저 친구는 지옥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보지 못할 겁니다.” 강도들의 다리가 꺾인 후에 회개한 강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몸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지만 그의 혼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회개한 그 강도를 맞아 주셨을 겁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회개한 강도는 낙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모든 거짓 종교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모든 거짓 종교들은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죽음부터 부활까지 하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현대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눅 16:19-22)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죄인이었지만 부유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23-24절)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자는 선택 받은 민

족(유대인)이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선택 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종교에 속해 있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야,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25절)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건 선교사가 복음전도자건 상관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무엇을 했건 어디에 속했건 상관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26절)

지구 안에는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지하 세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 바깥 쪽으로는 불이 있는 지옥이 있고 그 안쪽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있습니다. 지옥을 지나 구렁텅이를 지나면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과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

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6:16-20)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으로 가서서 죄를 모두 그곳에 던지시고 문을 열고 지옥을 나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듯 구렁텅이 위를 지나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안 구원받고 낙원에서 안식하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큰 기쁨 가운데 연합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레함 스크로기라는 훌륭한 성경 교사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의견 충돌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8-20)

지옥에는 감옥이 있고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고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

아 시대에 있던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혼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지하 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가서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노아가 전한 것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불경건과 죄 가운데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했을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하세계에 계시는 동안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혼들과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 28:14-15)

마귀를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길이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 길로 다녔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0-53)

예수님의 죽음 후에 많은 구약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 있었고 혼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의 혼이 낙원으로부터 돌아와서 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몸과 연합했습니다. 혼이 돌아와서 죽은 몸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첫열매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 20: 16-17)

예수님의 혼이 지하 세계에서 나오셔서 돌무덤 속에 있던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의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몸 속으로 들어가셨으며 의인들의 영들도 다시 돌아와서 부활한 자신들의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활한 구약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 부활한 구약성도 중 하나가 헛된 논쟁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예레미야다.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다가 모퉁이에서 또 다른 부활한 구약성도를 만납니다. “나는 이사야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부활한 구약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과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 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행 1:6-9)

영과 혼이 몸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4:8-10)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가서 죄를 처리하고 낙원에 가서 구원받은 혼들을 데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혼들은 비록 안전하게 거하면서 안식하고 있었지만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을 소망 중에 갇힌 포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거나 구원받지 못한 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몸을 떠나 주님과 있게 되지만 구약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부활했습니다. 누가 다시 땅 속에 있던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겠습니까? 다시 이 천년 간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 누가 더 있고 싶어하겠습니까? 이것은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부활한 구약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아마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미 전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도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구약성도들이 함께 올라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주님께서 무덤과 낙원과 이 세상(지구)에 속박되어 포로로 사로잡혀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몸은 땅 속에 묻힐 것이고 저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의 혼은 몸과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영이 돌아와 다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행 1:10-11)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십니까? 저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건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좋은 날만이 남았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12.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

느니라.”(딤후 3:16-4:5)

본문을 4장까지 읽은 이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와 양심의 마비에 대해서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1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는 공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기 전에는 버스 정류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거하기 전에는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더러운 영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마귀의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마귀의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자 수 많은 교회 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부해보면 참된 부흥은 19세기를 끝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치는 교회도 흔치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교회는 매우 희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

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과 대학교에서 구원받지 못한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심리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학생과 청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과 교회에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테전서 3:16을 보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모두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 절대자에게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가르칩니다.

마귀는 영리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루터의 주도하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 채 백 년이 지나기도 전에 독일에서는 세속적인 인문주의(휴머니즘)를 가져온 이성주의적 사고방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강하게 일어난 지역, 이를 테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도 역시 강한 세속적 인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자 마귀는 인문주의를 통해 다시 그들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현대주의(모더니즘,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무신론-역주) 운동이 신학교를 휩쓸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교가 현대주의에 영향을 받자 30-40년이 채 되지 않아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교리를 제거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도 자동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이나 공자나 점쟁이와 같아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제거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어떤 좋은 생각이나 제안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와 같은 개신교의 주요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서 세속 종교와 같아졌는지를 뒤돌아보면 그 붕괴는 항상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수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목사들을 길러 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목사들에게 양육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청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187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 탄생은 더 이상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10년부터 1950년 사이의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핵심적인 교리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라도 보여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구절을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라고 믿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고 다른 현대 역본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누가복음 2:33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지만 ASV(미국표준역본)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요한일서 5:7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NIV(새국제역본)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의 이러한 차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회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관한 교리를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변경된 성경을 사용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 자체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역본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변경시킨 현대 역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탄은 오래 전부터 수고해왔습니다. 지난 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피와 처녀 탄생을 관한 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

들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현대 역본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경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성경적 교리와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 인문주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속적 인문주의가 교회를 장악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와 믿음과 목사와 찬송과 활동과 기준과 성경을 스스로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교회와 자신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도 쫓아내고, 성경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일치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딤후 4:1)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16을 여호와와의 증인들의 성경과 NIV와 NASV(새미국표준역본)와 기타 다른 현대 역본들의 원문이 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리스어 원문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한 단어만 바뀌었지만 모든 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변개된 현대 역본에서는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을 단어 하나만 바꿈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육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난 때에는 사탄도 육체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난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으며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리시거나 식사를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뺨을 맞으실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하는 영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서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사용하는 변개된 성경의 기원은 독일 이성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한 변개된 성경들의 열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변개된 성경들에는 오직 본성에 속한 사람들(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 탄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육체적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신약성경에는 21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게 위대한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가장 위대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는지는 반드시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among women) 복이 있도다, 하매”(눅 1:26-28)

성경은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은 여자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삿 5:24).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

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29-31절) 수태가 일어나는 곳은 태가 아니라 나팔관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잉태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32-35절)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석가들과 신학자들과 현대 역본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것”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몸 안에 거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입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육신의 집이었습니다. 인간이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신비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평양의 모든 물을 물방울 하나처럼 여기시는 분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여인의 태 안에서 만들어진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 속에 형성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히 10:4-5)

성경이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방으로 들어올 때” 라고 하기 위해서는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친구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게 아닙니다. 미리 존재해야

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5절) 몸이 예비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Word)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 1:1)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영어로는 대문자 “W”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인 성경을 의미할 때는 항상 소문자 “w”로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2-5절)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절)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 1:17)

“영원하신 왕” 누가복음 1:33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은 죽지 아니하시는 왕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녀탄생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누군가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걷고 그분을 따르다 해도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made of a woman) 율법 아

래 있게 하셨나니”(갈 4:4)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made of a woman)”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made of a man and a woman).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자의 협력 없이 오직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울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5 절)

하나님께서 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4-15)

성경은 여자에게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인간은 오직 남자만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것은 명백하게 처녀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씨가 아닌, 인간 아버지의 씨가 아닌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14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웨스트코트와 홀트 계열의 변경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일 성경이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당신은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마 1:23). 아담의 씨를 통해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여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여자의 태에 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name)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 9:6)

성경은 그의 “이름들”(복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이름”(단수)이라고 합니다. 처녀 탄생을 할 아이가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아이이기 때문입니

다.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는 이름이 모두 한 아이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유에 누워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영존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는 아버지”이신 분께서 마리아의 태에 예비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실 수 있었고 당신과 저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갈 3:16)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한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

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1-4)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도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이나 부활하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전 15:21-22)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죽음이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승리도 인간을 통해 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고전 15:35-38)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

의 씨로 오셨고 그 자신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선한 인간이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처녀 탄생을 통해 오신 창조자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39-53)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몸은 썩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이미 썩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살아 있지만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를 땅을 묻을 것이고 저의 몸은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54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썩을 것”은 죽은 몸을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함”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을 것”은 우리의 현재 몸을 의미합니다. “죽지 아니함”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55절) 아직 사망은 저에게 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망이 저의 몸을 쏘 것이며 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56-57절)

제가 어떻게 죽음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썩음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 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

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행 2:22-31)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어 썩음을 향해 나아갔으나 삼 일 밤낮이 지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땅의 심장에서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와 죽음과 지옥은 패배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눅 24:36-37)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으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38절) 제가 복음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을 아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마

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 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 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 느니라, 하시니라.”(39절)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거리를 다니셨고 육체를 입고 삼 년 반 동안 설교하셨고 육체 를 입고 죽으셨고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계속해서 5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 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 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50-53절) NASV(새미국표준역본)에는 “그들을 떠나 위 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덕에 지난 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 다. 저는 특히 3곳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 장소들이 실제 역사적 인 장소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작은 회당입니다. 둘째 장소는 동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 곳에 서서 예수님께 서 오셔서 그곳을 밟으시면 그곳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 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몸을 입으시고 걸으셨 고 설교를 하셨으며 죽으셨고 다시 일어났으며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 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 2:5)

지금 당신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인간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두 손에 있는 상처들은 무엇이나?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슥 13:6-7)

이것은 아마 주님의 부활 이후에 누군가 주님을 본 것에 대한 묘사일 것입니다. 성경은 “흉터”가 아니라 “상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손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도마에게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도 여전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님께서도 도마에게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라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묘사하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을 보세요. “또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9절) 이것은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광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10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태에 예비되었던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렸었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1-8)

1절에서 말하는 “장막 집”은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즉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인 저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다만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나 지옥이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썩음입니다. 육체는 썩게 됩니다.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몸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당신은 저의 호흡과 박동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의 몸입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는 그 몸 안에 있지만 죽으면 더 이상 그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이곳에 남아있어도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몸을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면 저는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의 몸은 죽지만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오신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처리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나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시고 낙원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만나 교제를 나누셨고 낙원에 있던 모든 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거하는 집입니다. 저도 몸 안에 거하고 있고 당신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고 당신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당신과 저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행 1:9-11)

예수님께서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

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
느니라.”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당신의 신앙
의 기준이 당신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 록

부록1: 가장 중요한 질문

□ Dennis Costella, Matt Costella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막 8:36-37) 당신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나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후세계나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붙들고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

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들”(엡 2:3)이었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엡 2:1)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는 모두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 그대로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

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또한 성경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어린양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주님의 거룩하신 면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어디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15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실존 장소입니다. 성경은 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 당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보다 많은 선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들(침례나 세례, 고해성사, 주의만찬 등)을 하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은 모두 착각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결코 피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 3:5)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살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완전히 지

위버릴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으며 온전히 거룩한 의로 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그 형벌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 5:6)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고 희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8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5)

젓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님 위에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요 19:30) 라고 울부짖으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해결책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그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이 치러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 10:43)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죄를 모두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약속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 5:1-2)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 2:8-9)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 16: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 3:16-18)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 4:5)

즉각적인 기회

독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모두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는 정죄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고후 5:21). “내가 말 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로마서 3:26)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짓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1-13은,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자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들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요 10:28)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봉인되었으므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다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

선행이나 성사나 종교의식이나 교회 출석이나 도덕이나 침례나 세례나 영성 체험이나 다른 무엇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이러한 초청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 20:21)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고 씻음 받으며 성령님께서는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 22:17)

부록2: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 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벰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후전 2:3-6).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 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딤후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요 3:16).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딤후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딤후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딤후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

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문서사역 후원 안내

“그러나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단 10:21a)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도서출판 진리의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들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근거하면서 킹제임스성경을 전혀 비평하지 않는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저술한 책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만든 책들을 출간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세워주는 건전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서 구매가 어려운 교회와 개인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서사역 후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상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윤보다는 구원받은 혼과 영적 성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대표
이우진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국민은행 384702-04-212299 이우진(문서사역)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http://cafe.naver.com/bbckjb>)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게시판을 참고 하십시오.
-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후원금액을 문자(010-2322-1611)나 메일(kjv74@hanmail.net 또는 kjv74@naver.com)로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원저자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600만 개의 도서와 테이프 자료들을 전 세계에 보급해 왔습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문서사역과 테이프 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편역자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4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http://cafe.naver.com/bbckjb>

